

전국여성위원회,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3월 21일(금)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어 하루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서영교·백혜련·이재정 전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전국여성위 부위원장, 각 시·도당 여성위원장, 여성리더십센터 소장단,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지역별 대표 의원들은 현재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른 국가의 혼란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여성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곡기까지 끊어가며 목숨 걸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절규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조속한 파면 선고로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여성위는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외교, 경제, 국방, 평화 안보 등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늦어질수록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은 힘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3월 20일 헌재 앞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달걀테러와 저녁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이재정 의원에 대한 극우 폭도의 폭력행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공권력을 부정하며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짚으며, 지금도 광장을 지키느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9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98일째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겨우내 추위와 싸우며, 거리에서 눈을 맞으며 밤을 지새운 국민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곡기까지 끊어가며 목숨 걸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절규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내란에 대한 증거는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전 국민은 내란의 밤 완전무장한 군대가 군홃발로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당일 발표된 반헌법적인 포고령은 우리 국민이 수 십 년간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증언들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오래 전부터 계획해왔던 내란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도록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져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늦어질수록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구속됐던 윤석열이 어처구니없이 석방됨으로,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침탈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들은 더욱 득의양양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중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는 한국이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은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도, 한국정부는 두 달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 평화 안보 등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더욱 견디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오늘도 관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자신의 추종세력을 통해 헌정질서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만이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일상을 포기한 채 날마다 광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지금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지정하고, 파면을 선고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